

# 전남 난대수종 '생달나무' 시그니처 향기로 탄생

## 산림자원연구, 디퓨저 등 개발 향긋·시원한 유칼립투스 향 등 불안감·우울감 개선 효과도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생달나무를 활용해 만든 시그니처 향기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향긋하고 시원한 생달나무 향기를 이용해 디퓨저, 린스프레이로 구성된 향기 제품을 개발해 지역 비교우위 난대수종을 활용한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생달나무는 완도, 진도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 자라는 난대수종이다. 예로부터 잎을 차로 마시기도 하고 목욕 물에 풀어쓰는

아로마테라피 재료로 사용했다.

잎과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칼립톨(Eucalyptol), 캄파(Camphor)향은 청량감을 주면서 면역 작용과 염증 완화 등의 생리 활성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07년 뇌파, 기분 상태 척도 등 생리·심리적 지표를 통해 산림 수종 치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생달나무의 향긋하고 시원한 향기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개선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한국 인간·식물·환경학회지(10권 2호)'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현재 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료 소재로서 생달나무 산업화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개발 생달나무 디퓨저 세트.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제공

를 추진 중이며 2012년에 기능성을 연구해 향균 조성물 특허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엔 향산화와 피부미백 기능에 대한 특허출원과 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 기업과

함께 화장품과 특색있는 향(香)을 이용한 휴대용 방향제 '힐링 캄파트리'도 개발했다.

올해는 생달나무 잎에서 추출한 고유 향기 성분을 이용해 디퓨저와 린스프레이로 구성된 세트 제품인 '듀이 캄파트리'(dewy camphor tree·이슬 맺힌 생달나무)를 출시했다.

생달 향을 담은 향료조 성물을 특허출원하고 해당 특허를 수요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난대수 향기 제품으로 산업화할 계획이다.

오득실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남 비교우위 산림 수종에 대한 고부가가치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건재 기자

## 장성 동화면 '동화나라 큰잔치' 난타·웃놀이·네일아트 등 풍성

장성군 동화면이 최근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인 '동화나라 큰잔치'를 문화센터 운동장에서 열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동화면 주민자치센터(위원장 김대진) 프로그램 발표회를 겸해 열린 이번 잔치는 동화면민 300여 명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이 참여해 시종일관 활기가 넘쳤다.

먼저, 오전에는 난타, 노래교실, 줌바댄스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펼쳐졌다. 오후에는 신발 과녁 던지기, 웃놀이, 플라후프 돌리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돼 함박웃음이 이어졌다.

한방 족욕, 천연염색 물들이기, 인절미 만들기, 네일아트 등 풍성한 체험행사도 사람들의 발길을 모았다.

행사 말미에는 경품 추첨과 수강생 다과 시간이 이어져 마지막까지 흥겨운 분위기가 끊이지 않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축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한다"면서 "보다 많은 주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천 기자

## 가족 숲 힐링캠프 '호평' 장성군, 임산부 가정 대상

장성군이 최근 임산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족 숲 힐링캠프'를 운영해 호평을 얻었다. 장성군 가족센터와 국립장성숲체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축령산 편백숲을 무대로 마련된 '숲 테라피', '숲 태교' 등 치유 프로그램이 가족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숲 테라피'는 편백숲이 내뿜는 피톤치드 향기를 느끼며 숲과 교감하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활동이다.

'숲 태교'는 축령산 치유의 숲에서 편백 아기용품 함께 만들며 태아와 부모 간 애착을 형성하고, 산모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그밖에 편백 베개, 한지 전등 갓, 편백 냄비 받침대 만들기 등 수공예 체험 활동에도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립장성숲체원과 함께 난임부부 대상 힐링캠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유봉천 기자



장성군 가족센터와 국립장성숲체원이 공동으로 가족 숲 힐링캠프를 운영했다.

장성군 제공

## 담양농협, 친환경 쌀포장재 도입 국내 최초... 수분·냄새 등 차단



환경 친화 경영(ESG)에 앞장서고 있는 담양농협(조합장 김병진)이 전국 최초 쌀 포장재에 친환경 종이 소재 '프로테고'를 적용해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한솔제지 친환경 종이 소재인 프로테고는 수분과 산소, 냄새 등을 차단하는 특수 종이 포장재로 기존 종이 소재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특수처리를 통해 내용물 보존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한국환경기술원 등에서 식품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패키징 소재로 담양농협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쌀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농협 김병진 조합장은 "해외시장을 반영한 친환경 포장재 개선 등 다양한 상품에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해, 사회적 가치 소비를 늘려가고 ESG경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영광군, 올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3억 확보

### 민선 8기 누적 126억 달성

무소속강종만(사진) 영광군수가 민선 8기 들어 활발하게 펼친 국고 예산 확보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영광군은 민선 8기 들어 2022년 하반기부터 누적 12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총 4개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쓰인다, 사업 분야별 예산은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8억원, 영광 스포티움 진입도로 정비공사 7억원, 영광읍사무소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노후위험교량 오동2교 재가설 공사 4억원이다.

영광 공설추모공원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군남면 대덕리에 자연장지와

방안당 조성을 통해 지금까지 타 지역의 장사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던 군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읍사무소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은 영광읍사무소에서 영광성당 뒤편까지 소로 100m를 신규 개설해 군민들의 통행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강종만 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재해예방을 위해 국고 예산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나주시, 15일까지 내년도 노인일자리 3805명 모집

### 공익활동형·시장형 등 4개 분야

나주시가 지난해 대비 465명이 증가한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4개 분야 노인일자리 모집에 나섰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20곳과 사업 수행기관 6곳에서 4개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내년도 일자리는 전년 대비 465명이 증가한 총 3805명을 모집한다. 사업비 162억원(국비50%·도비15%·시비35%)이 투입된다. 노인 일자리(참여자 수)는 '공익활동형'(2900명), '사회서비스형'(605명), '시장형'(200명), '취업알선

형'(100명) 등 총 4개 분야다.

사업은 읍·면·동,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 주관의 직접수행 사업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울인복지회 등 4곳 수행기관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보수는 월 30시간 근로 기준 월 29만원이다. 전년 대비 2만원이 증가했다.

사회서비스형은 참여 노인의 역량에 맞춘 지역사회 돌봄에 중점을 둔 일자리로 월 60시간 근로 기준 전년 대비 4만원이 증가한 63만4000원을 지급한다.

시장형 일자리는 노인들의 능력과 적

성을 고려,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월평균 보수는 267만원으로 책정됐다. 신청자 기본 요건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일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요건 문의는 사업수행기관 4곳으로 하면 된다.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일자리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선발기준표에 의거 참여자를 오는 22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 담양 메타뮤직페스티벌 23~25일 메타프로방스 일일

담양군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담양군에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산타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담양 메타프로방스 및 원도심 일원에서 2023 담양메타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된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랜드 일원과 중앙공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축제장 곳곳에 특색 있는 촬영 공간과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배치해 겨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뮤직페스티벌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내 무주대를 마련했으며, 브라스밴드의 거리 행진과 드론 레이저쇼와 함께하는 개막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23일과 24일은 하이키, 프로미스나인, 위아이, EXID, 노라조, 코요태, DJ 박명수, DJ 랠리, DJ 헨들핀, DJ 춘자 등 신나는 EDM(전자 음악)으로 풍성하게 채우고, 25일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박구윤, 요요미, 서지오 등 트로트 공연과 지역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크리스마스 체험 프로그램과 '산타를 이겨라!'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담양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소아르페복합예술단지에서 진행되는 '산타왕을 찾아라' 이벤트를 비롯해 중앙공원 거리 공연, LP음악충전소 이벤트 등으로 담양군 전역을 캐럴이 울려 퍼지는 연말 분위기로 채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담양이 전남의 겨울철 관광을 선도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을 중점으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